

# 여경협, '제3회 여성기업주간' 돌입

슬로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 19개 지역서 55개 프로그램 운영 우수제품 온라인 상생기획전도



희망하는 예비 수출 여성기업인들이 모여 글로벌 진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또한, 주한 여성 외 국대사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저력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개막식에 앞서선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례 선임연구위원과 (주)코디트 정지은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2일에는 '여성CEO오찬포럼'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다.

포럼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속 여성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삼일 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가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AI)시대에 직면한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 경영인사이트를 제공한다.

3일에는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서울 역삼동 팀스타운(S1)에서 열린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수상자 시상 외에도 ▲수상작 제품 전시 ▲

선배 수상자 토크콘서트 ▲네트워크킹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여성 스타트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

5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여성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담당회'도 열린다.

이 밖에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1~31일, 잠코리아) ▲여성기업 판로 역량 강화교육(8일, 코엑스) ▲맞춤형 MD 상담회(11일, 양재동 AT센터) 등도 예정돼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사진)은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여성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바로 '글로벌'이라며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기업 제품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우수제품 온라인 상생기획전'도 펼쳐진다.

기획전은 ▲쿠팡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1~31일) ▲공영홈쇼핑 상생방송(3일) ▲여우핫딜 페스타(1~5일)로 구성돼 7월 내내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미래유망 분야 주관대학 선정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대학	학과명	학위
중소기업 계약학과	평택대	반도체엔지니어링학과	학사
	한국공학대	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석사
	순천향대	스마트제조공학과	석사
기술사관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전문학사

## 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4곳 선정

"청년 일자리 창출, 인력난 해소 기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신기술·신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4곳을 새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이번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평택대(반도체엔지니어링학과), 한국공학대(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순천향대(스마트제조공학과), '기술사관'은 계명대(소방환경안전과)를 각각 선정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열고 중소기업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문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취득(과정당 1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을 통해선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각 주관대학은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육 기반(인프라) 구축, 학생 모집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9월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기술사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중소기업,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는 각 주관대학의 모집 요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이 미래 유망분야 인재를 양성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기초자치단체 등 신청 자격 확대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포함 9곳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새로 선정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대표적인 규제프리존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강원(AI 헬스케어 특구), 충북(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전남(직류산업 특구)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합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초광역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세 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케이티엔에프, 동반성장 지원 맞손

네트워크론 활성화, 지역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산 서버 개발 전문기업인 케이티엔에프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활성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뜻을 같이해 성사됐다.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은 중진공이 올해 신규 추진 중인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의 수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저리의 단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측은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에 단기 정책자금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오른쪽)가 케이티엔에프 이종현 대표와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업 추천과 연계 지원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협력 중소기업 대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등 후속 연계 지원 ▲산업 현장 정보교류 확대 ▲우수기업 발굴 및 사업 홍보 등이다. /김승호 기자

## 아세아시멘트, 석회석 대체 시멘트 공정 실증

포스코·현대제철 슬래그 2400t 제조

아세아시멘트가 시멘트산업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슬래그로 석회석을 대체한 시멘트 시제품 제조 실증화 공정 시험을 실시했다.

30일 아세아시멘트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시멘트 원료용으로 전처리 가공한 슬래그 약 2400톤을 가져와 이를 적정 비율로 석회석 등 기존 원료와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에너지 효율 변화를 확인했다.

또 시멘트 압축강도와 유해성분과 같은 시멘트의 전반적인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했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정부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업계와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통상 수년 이상이 걸리는 실제 공정 활용 실증화 실험을 전격적으로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 업종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기술개발이 성공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들이 충북 제천에 있는 공장에서 철강 슬래그를 석회석 대체원료로 활용한 시멘트 시제품 제조 시험을 알리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적으로 진행돼 탄소배출 저감,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홈앤쇼핑, 월간 프로모션 전개

홈앤쇼핑이 7월을 맞아 다양한 월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0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월간 프로모션 행사 중 하나인 '럭시세븐 쇼핑어택'은 7월 내 실결제금액 1만원 이상 모바일 앱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차등 지급하고 총 47명을 추첨해 경품을 선물한다. 당첨자는 14일 발표한다.

"TV는 적립을 신고" 행사는 6~7월 두달 연속 TV 라이브 상품을 10만원 이상 앱 구매 시 1만원 적립금을 지급한다.

'빅 적립데이'는 10일 당일엔 행사 기획전의 전시 상품을 모바일 구매 시 추가 10% 적립금(최대5만원)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 교원 웰스

'아이스원' 신기술 5건 특허

교원 웰스(Well s)가 얼음정수기 신제품 '아이스원(사진)'에 적용한 신기술 5건에 대한 특허 출원을 끝냈다.

30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출원한 특허는 얇은 패널 형태의 이중관 냉각장치를 통해 제품의 크기는 최소화하면서 아이스룸 공간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또, 제품 결빙을 방지하고 얼음의 탈빙과 운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김승호 기자

